

예 술가는 누구든 자기영역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그간 수련해온 모든 체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온갖 정열과 혼(魂)을 투여하여 작품을 완성, 세상에 내 놓는다. 그러므로 그 완성된 작품앞에서 “뿌듯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만끽하며 때에 따라선 결과물에 대한 신랄한 비평과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것이 건축설계일 경우 그러한 산고(産苦)의 역정이 뒤따른다.

우리는 얼마전 남산 외인 아파트 철거광경을 지켜보면서 철거공법의 치밀함과 신속함 그리고 대단한 기술발전에 대해 세상사람들과 함께 경탄스러움을 표했지만, 한편 건축인으로서 뼈아픈 반성과 허망감 또한 저버릴 수 없었다.

그 건물이 어떠한 동기와 사정으로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었고, 세워졌던 간에 그것이 서울 도심의 유일하고 상징적인 영산(靈山)의 자연경관을 가로막는 흉물로 더 이상 존칭될 수 없기 때문에 당국의 고난에 찬 결단을 우리 모두가 환호 하였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낯선 손님 맞을 우리의 주거환경이 충분치 못했던 터라 당시로서는 매우 앞서가던 건축전문인들(도시계획가, 설계가, 건축행정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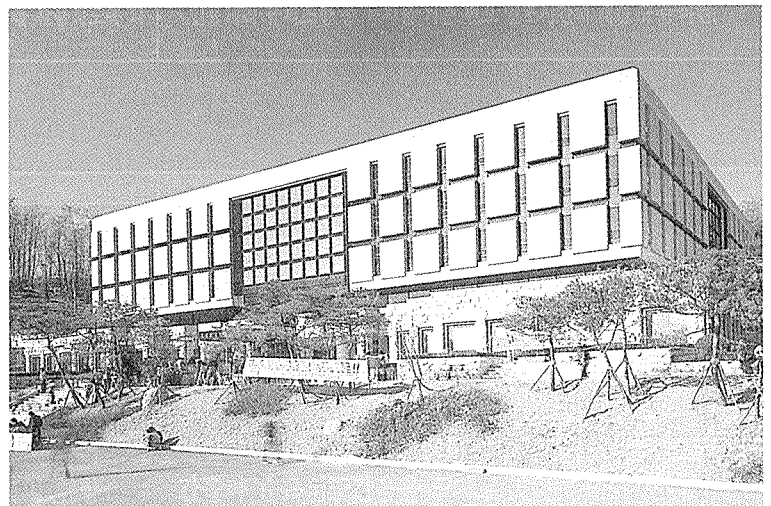
공자) 다수가 참여하고 동원되어 이룬 업적(?)이 그들자신 또는 직후 배들의 손에 의해 순식간에 지워져버리는 해프닝이 한 장인(匠人)의 마음에 시원스러움과 함께 허탈감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또 근간의 보도에 보면, 그 남산기술 아랫자락에 바로 인접해서 터전을 잡고, 40여년간 유지되어 왔던 한 사립대학 캠퍼스가 이전계획되면서 그 자리엔 대단위 고층아파트 군락이 들어선다는 공고이다. (15층 내외 31개동 4천여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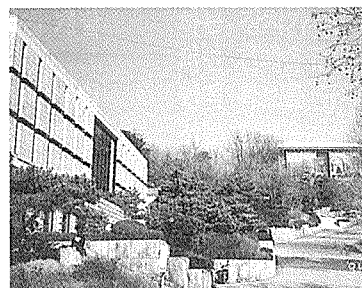
건축물에 대한 보존은 우리모두의 몫이어야...

The Preservation of Architecture is Our Own Du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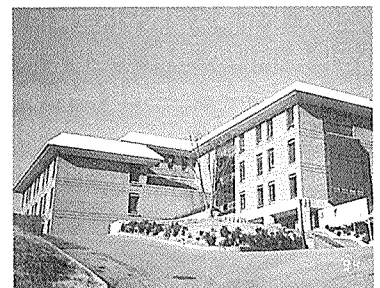
李應默/건축사사무소 새한
by Lee, Eung-Mook



퇴계기념 중앙도서관(정림건축 김정철 설계)



단국대 한남 캠퍼스 전경



미술관(미술대학)

이 발표를 보면서 재정위기에 직면한 사학재단의 비장한 결단, 혹은 발전지향적 새로운 계획을 타하거나 무작정 주거공간 확대만을 위해 주변 환경을 위해 할지도 모를 우려에 대해 염려해서라기 보다는, 우리는 개인이건 공공(公共)이건 간에 우리삶과 활동의 터전인 건축공간 및 그 자취에 대한 애정과 전통, 환경을 너무도 쉽게 바꾸어 버리는 현상과 세태(世態)에 대해 당혹감을 갖게 된다.

이 대학 캠퍼스는 쾌적하고 풍족한 부지여건과 환경을 갖추었다고 보기엔 부족함이 많고, 역사있는 종합대학교정으로서의 열악한 편이긴 하지만 십여동에 달하는 교사동과 운동장,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음악당, 학생관, 기숙사 등 간소하게나마 캠퍼스가 갖추 시설물과 자연스러운 조경이 구비되어 많은 수의 젊은 인재들을 사회에 배출해 왔었다.

특히 근년에 건립된 개별 건물중에는 우리 현대건축계에 돋보이는 활약을 해온 정열적인 건축가 몇분이 심혈을 경주해 설계하여, 지어진 건물들과 낡은 교사동을 개조하여 재창출시킨 조형경관으로 캠퍼스의 면모를 점차 새롭게 꾸며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들 10년 안팎의 근작들에는 퇴계기념 중앙도서관(김정철 설계), 난파기념 음악당·석주년기념 민속박물관, 미술관, 기숙사(이상 김인석 설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필자는 이 건물들의 작품론이나 조형성, 또는 캠퍼스 구성의 적합성을 논하고자 함이 아니고 정상적 대학교육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으로서 건립되어 일정기간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시설물들이 사용주체나 관리자가 바뀔 형편이 되었더라도 적어도 이와 비슷한

용도로 재활용될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근래에 신·증설되는 여러급의 교육기관들(단과대학·전문대학 등), 공공단체나 대기업들의 연구소, 연수원, 공·사립의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공간들이 계속 증가되는 수요속에서 이만한 여건의 기존건물들을 그대로 재활용하거나 부분적 개축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부가해가는 적극 활용(Renovation)의 건축적사고와 크라이언트의 문화통찰력 발휘는 기대할 수 없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근자에, 고궁의 유구를 파헤쳐버려 역사성의 상실 또는 말살해 가면서까지 시립미술관, 박물관을 경희궁터에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끊이지 않음을 상기할 때, 또 외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재건축·재활용을 통해 문화와 역사보존하는 사례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점차 과대하게 도심확산, 고밀도화 해가는 우리의 도시환경하에서 경제 편의성만을 취해 “고층아파트”단지화로 쉽게 귀착되어지는 우리의 경제, 정신문화수준을 되새겨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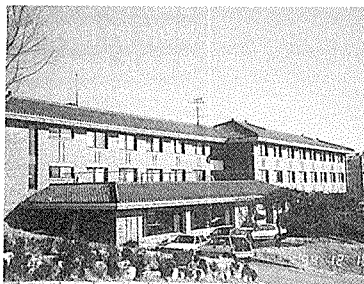
이제 우리의 주거개념이 대도시는 물론 지방의 중소도시나 시골마을에 인접해서까지 주변의 자연환경과는 조화됨 없이, 획일단조, 고층, 회색으로 특징지어지는 주거양상으로 탈바꿈해가고 있음을 볼 때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고, 예스러운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자연과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건축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난파기념 음악관(음악대학) (일건종합건축 김인석 설계)



석주년기념 민속관



기숙사동